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경제적 및 성적인 측면의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과 성, 출산과 가사, 이혼 및 독립적 직업의사결정 등 결혼 관련 측면들과 큰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에 먼저 이러한 변인들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관련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34명의 대학생(남: 158명, 여: 186명)에게 이와 관련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들에 비해 결혼 관련 측면들보다 직업을 더 중시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성적 개방성과는 정적으로 관련되었지만, 기타 결혼 관련 변인들과는 대부분 의미 있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남학생들과 반대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독립이란 가사보다는 직업을 더 중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독립가능성, 결혼, 성, 출산, 가사, 이혼, 독립적 직업의사결정, 남녀차이

* 이 논문은 2005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인생사건이었다. 그래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녀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 가족을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여, 결혼이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출산 역시 더 이상 필수적인 인생사건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지위를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결혼에 따른 문제 발생시,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그들의 결혼을 해체한다.

왜 이처럼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인생사건 혹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여러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예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이 오늘날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존 기능, 성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한 친밀성의 기능, 그리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재생산의 기능 등이다(Lederer & Jackson, 1999).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회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생존기능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했다(Buss, 1985; Feingold, 1990, 1992; Landis & Landis, 1968; Lederer & Jackson, 1999). 가부장제도 하에서 남성은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했지만,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어 자립할 수 없었고, 이에 남성과의 결혼은 여성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결혼은 남녀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근대화 이후 일부일처제가 보편화되었고, 혼전경험을

금지하여 오직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만을 허용하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다. 그래서 결혼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김경신, 이선미, 1998; 문인옥, 1997).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전통적인 사회는 가족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가족의 이러한 기능은 근대사회로 오면서 크게 변모하여, 사람들은 이제 가족과 독립적으로 생존 욕구와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교육 기회의 확충을 통해 남자들이 독점하던 직업을 취득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Collins, 1988; Smith, 1979). 또한, 성의 엄격한 잣대가 완화되면서 개방적 성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결혼과 무관하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이와 함께, 사회적 생산 활동에 대한 가치가 증대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개인적 욕구 실현이 자녀출산보다 더 중시되면서, 가사와 출산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저하되었다(손승영, 2005; 장혜경, 2004).

이처럼 결혼과 무관하게 경제적 및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결혼 및 가정을 이전에 비해 덜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남녀차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및 성적 측면에서 남녀 간 차이가 상당히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성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마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사회적 독립가능성 즉, 결혼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

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이나 가족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사회적 독립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 관련 여러 측면에서 개 인차를 가져오는 하나의 변인으로 사회적 독립가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관련해서 경제적 독립과 성적 독립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한 한 이유는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여성의 결혼과 가 사는 이 두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요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독립은 유기체로서 인간의 생존과 절대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성적 독립은 성인기에서 대인관계를 통한 정서적 욕구 충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성적 독립이란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한 성적 쾌락의 획득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유형의 독립은 물질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유형의 독립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경제적 독립

Lederer와 Jackson(1999)에 따르면, 가부장제의 정착과 함께 남성들은 경제력을 통해 가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권력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그들의 육체적인 힘에 근거하였으며, 그들은 규칙제정과 의사결정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권력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과 지적 생산성에 기초하게 되었으며, 권력의 크기는 금전적 양으로 측정되었다. 19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도 생산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여성들의 생산 활동 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7년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20.0%였으나, 1978년에는 48%로 증가하였으며(Smith, 1979),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80년대 말에 58%에 달했다(Collins, 1988). 한국의 경우, 1988년 한국여성개발원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63년도에는 36.3%에서 1987년도에는 45.0%로 증가했으며, 1987년도에 여성은 전체 취업자 수의 40.4%를 차지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전북일보, 2006.5.15), 2004년 기준으로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9%였으며, 이 비율은 90년 49.9%, 2000년 51.8%, 2001년 52.7%, 2002년 53.4%, 2003년 52.8% 등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외국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덴마크(76.1%), 스웨덴(76.6%), 노르웨이(75.7%), 스위스(73.9%), 캐나다(73.5%), 핀란드(72.0%)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국 69.2%, 독일 66.1%, 프랑스 63.7%, 호주 66.3%, 폴란드 58.2%, 포르투갈 67.0%, 스페인 57.7%, 그리스 54.1%, 오스트리아 63.5%, 체코 62.2%, 벨기에 57.7% 등이었다.

우리나라 취업 여성 중에서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기혼여

성의 참가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기획원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1970년 미혼여성의 취업률 39.5%와 기혼여성 29.9%가 1980년 미혼여성 43.5%와 기혼여성 34.2%로, 그리고 1987년 미혼여성 45.9%와 기혼여성 44.7%로 변했다. 또한,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여학생들의 취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남자대학생의 70.5%가 취업하고 여자졸업생의 47.3%가 취업했는데, 2003년에는 여자대학생의 61.8% 그리고 남자대학생의 67.1%가 취업하였다.

이러한 여성취업률의 증가를 가져온 한 요인은 그들의 교육수준 향상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이 크게 상승하여 학력에서의 성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진학률이 1970에 여자가 약 50%이고 남자가 약 70%였는데, 이런 차이가 꾸준히 감소하여 1985년대에는 그 차이가 거의 사라져 남녀 모두 진학률이 거의 100%에 도달했다. 대학진학률도 1965년도에는 여자가 약 21%, 남자가 약 37% 정도였는데, 그 차이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여자가 약 62%, 남자가 약 70% 정도였다. 대학졸업생의 경우에도 남녀차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85년에는 대학졸업생 중 37.0%가 여성, 2003년에는 48.8%가 여성이었다.

취업률 및 교육수준의 증가가 갖는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개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과 관련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과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

의적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타고난 신분보다는 각자의 성취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육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좋은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Jacobs, 1996). 200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교육에서 기대하는 목표로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37.8%)과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37.0%)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남성과 마찬가지로 흥미와 관심, 취업의 기회와 전망, 적성을 중요 변인으로 고려한다(길임주, 한대동, 2004).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화하여,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1991년도 16.7%에서 2002년 40.2%로, 가정에 전념하겠다는 비율이 1991년도 17.0%에서 2002년도는 4.4%로 감소하였다.

성적 독립

전통적 한국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성을 억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그리고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다. 또한, 남성들의 성적 추구는 상당히 허용적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강했다(예로, 김경신, 이선미, 1998). 그러나 해방 이후, 서양문화의 급속한 유입이 전통적인 성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예로, 문인옥, 1997). 또한, 남성 중심적 사회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기치아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극복하고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성을 금기시하던 풍토가 바뀌어,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성에 대한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성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사랑의 전화 카운셀24가 10-40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남녀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으며, 남자의 58%, 여자의 51%가 평소에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곱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대중매체의 발달이 큰 몫을 하고 있다. 412명의 대학생들을 조사한 문인옥(1997)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만화, 성인용 잡지를 접해본 여자는 40%, 남자는 90% 정도였으며, 포르노의 경우 여자는 30%, 남자는 90% 정도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84.4%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한 경험이 있고, 이 중 31%는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초·중·고생 1,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에서 23%가 한 달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접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의 해빙시대 혹은 성혁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풍토는 젊은이들의 개방적 성의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문인옥(1997)의 연구에서 참가자의 50%가 이성친구가 있었으며, 남학생의 30.5%, 여학생의 8.0%가 성경험이 있었다. 손

승영(2002)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성경험 관련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80년대 중반의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십대들의 성경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가령, 한국성문화연구소(1996, 1997, 2000)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6년에 남자 고등학생의 16.2%, 97년에 여학생의 7.5%가 성경험이 있었지만, 2000년에는 남학생 33.1%, 여학생 13.2%가 성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혼전순결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적 개방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송재희(1988)에 따르면, 남자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남학생은 36.55%, 여학생은 52.3%가 동의했고, 여자의 혼전순결에는 남학생 55.5%, 여학생 68.5%가 동의했다. 홍준숙(1987)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결혼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34.3%가 동의했고, 여자는 남녀 모두 혼전에 순결해야 한다는 것에 75.7%가 동의했다. 이러한 80년대의 연구결과에 비해, 2000년대의 연구에서는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용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사랑의 전화 카운셀24(2005) 조사를 보면,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에 불과했으며, 약 50%는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남미애(2001)의 대학생 192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7.7%가 혼전 성관계를 허용했으며, 39.5%는 사랑 없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성적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성적 욕구의 충족에 남녀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들의 비율이 여성들에 비해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성에 비해 남

성의 혼전경험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서 성을 파는 주체는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러한 성을 구매하는 주체는 대부분이 남성이다(예로, 주은희, 2002; Kinsey, Pomeroy & Martin, 195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성적 측면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결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태도

본 절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에서 결혼, 출산, 가사,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과거에 비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었음에 둘 것이다.

결혼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의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문소정, 1994). 특히, 여성에게 결혼은 자신의 구원자이며, 기혼여성도 결혼생활을 통해 이타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 믿었다. 실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의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중요 통로였기 때문에, 적령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1970-80년대의 경우, 남녀 대학생 대다수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유영주, 1976; 정현아, 1984).

그러나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많이 달라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2년에 천 명당 9.2명의 혼인율이 2003년에 6.3명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1,387명 중에서 47.7%가 결혼할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했다. 남성

들은 경제적인 준비부족(41.0%)이, 여성들은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31.7%)가 가장 큰 이유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8년에는 가정과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여성은 16.7%, 남성은 8.4%였는데, 2002년에는 여성이 40.2%, 남성은 30.2%로 증가했다. 손승영(2005)은 20세 이상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혼남녀는 기혼자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아동양육이나 경제적 부담은 부정적 결혼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의미는 예전과 비슷하게 남녀 간에 달랐다. 여성은 자신보다 남성의 학력이 더 높은 것을 선호하였고(강은숙, 1981), 남성은 결혼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과 성적 만족을, 여성은 애정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김경신, 이선미, 1998; 송재희, 1988). 또한,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자적 지위추구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권오주, 1989). 외국의 경우에도 여성은 결혼을 통해 지위의 상향적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e, 1982).

우리나라 미혼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 선택 조건을 보면, 모두가 애정, 성격, 건강을 고려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여자는 남자의 학력과 생활력 같은 현실적 조건을 더 많이 고려한다(김경신, 이선미, 1998; 서병숙, 정혜은, 1994).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04년 미혼남녀 2,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은 성격, 외모, 직업(경제력), 가정환경, 종교를 우선순위로 꼽았지만, 여성은 직업(경제력),

성격, 가정환경, 외모, 학력을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Buss, 1985; Feingold, 1990, 1992; Landis & Landis, 1968),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 등 비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여성은 남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야망, 지성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해 남성은 주로 성 등 정서적인 욕구를, 여성은 지위상승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출산과 아동양육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았으나, 198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 서비스 인력의 대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장혜경, 2004).

가족형성 시기의 지연, 결혼할 집단의 규모와 경제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성역할변인의 변화 및 성불평등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 1960년대 근대화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 변화가 혼인연령, 피임, 인공유산 등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이 저하되었다(권태환, 1997). 결혼의 주 연령층인 2-30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업연장과 경제활동의 참가로 혼인지연, 출산기피, 독신선호가 증가하였다. 1993년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은 25.1세, 남성은 28.1세였는데, 2003년에는 여성이 27.3세, 남성은 30.1세로 증가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및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비용의 증가가 출산율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손승영, 2005).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출산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1.6-1.7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77년 외환위기 이후 3-4년은 1.4 정도로 하락했고, 경제난과 실업위기가 증가하면서 2002년 이후에는 1.17-1.19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제시한 이유가 높은 교육비였다.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68.4%만이 사회적 성공보다는 자녀출산과 양육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 90.3%에서 2000년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여성의 직업적 경력추구가 결혼이나 출산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수준은 낮아진다. 여성 교육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젊은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높은 몰입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거 세대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정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한 한국여성의 인식수준이 높고,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나타난다(Mcdonald, 2002).

자녀양육을 위해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경제·사회적 활동과 관련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은 그들에게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최경수, 2003). 취업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때 가사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거의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가사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유지, 가족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발달 및 가족공동문화의 창조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조미환, 1996). 이러한 가사노동이 천하게 된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도 기인하는데(서선희, 1997),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주로 여자나 하인들이 담당함으로써 천한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여성학에서는 가사노동을 소멸해야 할 노동 또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경제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가사노동을 소멸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가사노동이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결국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은 폐지되어야 한다(Mitchell, 1970). 여성학에서의 또 다른 입장은 가사노동을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Benston, 1973). 가사노동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주력한다.

김대년과 이연숙(1990)의 개관논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았다. 또한,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시간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주중에는 취업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에 비해 적었지만 주말에는 그 반대였다. 전문고위직에 있는 사람보다 기술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았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태도 및 만족도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에 대한 만족도나 가치평가가 낮았으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태도가 강했다.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불만은 고립성, 사소함, 반복성에 있다. 가정에 고립된 상태에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고, 창조와 일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 소외의 주요인이다(서선희, 1997). 또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교육기회의 확대, 자녀수의 감소, 수명의 연장, 개인주의의 발달은 여성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의 직업에 대한 열망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도 주부의 80%, 여대생의 98%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직업과 가사를 모두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는데서 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서선희, 1997).

이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가 1980년 0.6건, 1992년 1.2건, 2003년 3.5건, 2004년 2.9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

에서 가족의 기능이 변하였다(김상용, 1996). 산업화 이전에는 대가족 형태의 가족이 하나의 노동 및 생산단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대가족을 대체한 핵가족 형태의 가족은 더 이상 생산의 단위가 아니라, 부부 간 애정에 기초하는 형태로 전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는 이혼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켰다. 봉건적이고 집단중심적인 사고에서 개인적 욕구와 가치를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가정이 소위 자아실현을 방해할 때 쉽게 해체될 수 있게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동아일보, 1990), 50세 이상 응답자 중 31%, 젊은 세대의 46%가 이혼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이유는 취업여성의 증가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은 곧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이혼할 수가 없다. 실제 6-70년대 협의 이혼한 3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최재석, 1982), 85.4%의 이혼여성들은 이혼 직후 자신들의 부모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가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남기보다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와 함께, 자아실현,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개인의 생존권 유지와 갖는 연관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부부 간 정서적 변화가 결혼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1)본 연

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독립과 성적 독립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독립가능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과거의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결혼과 상관없이 경제적 및 성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취업률, 직장에서의 지위 등에서 여전히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성적인 욕구의 충족 기회나 성관계에 대한 허용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적 독립가능성에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성, 아동양육과 가사, 이혼 등 결혼 관련 사건들과 비교해서 직업 혹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갖는 가치 혹은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령, 결혼과 직업이 갈등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결혼보다는 직업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혼과 성, 아동양육과 가사, 이혼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언제나 직업 혹은 취업이라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이러한 결혼 관련 사건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직업이라는 측면을 서로 대비시켜 그 상대적 가치를 남녀 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독립가능성이 결혼에 비해 직업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결혼 관련 측면보다는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업을 중시할 때 독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344명(남: 158명, 여: 186명)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는데, 1학년 153명, 2학년 48명, 3학년 77명, 4학년 66명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94세(SD = 2.57, 남: 21.22(SD = 3.05), 여: 20.71(SD = 2.04)이었다. 출신지역으로 보면, 대도시 216명, 중소도시 101명, 농어촌 27명이었다.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9명, 없는 학생은 101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심리학 관련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에게 참가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여타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유계식과 이재창(1997)의 성역할 영향 진로 동기 척도의 하위척도인 22문항의 진로-가정(결혼) 갈등 척도와 김영옥(1999)의 설문지에서 선정한 총 4문항(예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을 이용하여 사회적 독립가능성(정서적, 성적, 직업적, 자기실현적인 측면)을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4$ 이었다. 또 다른 6문항(예: 결혼 후 가사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을 선정하여, 결혼과 직업이 갈등적인 상황일 때 직업을 어느 정도 더 중시하는지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백희영(2000)과 김영옥(1999)의 설문지에서 4문항(예: 결혼할 상대가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을 선정·수정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성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66$ 이었다. 또 다른 4문항(예: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생각한다)으로 결혼과 상관없이 맺는 성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유계식과 이재창(1997)의 하위척도인 22문항의 진로-가정(결혼) 갈등 척도에서 5문항(예: 직업 때문에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직장생활을 계속하겠다)을 선정·수정하여, 직업과 아동양육이 갈등적인 상황일 때, 직업을 어느 정도 더 중시하는지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80$ 이었다. 또 다른 5문항(예: 결혼 후 가정과 직업의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가사보다는 직업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을 선정·수정하여, 직업과 가사가 갈등적인 상황일 때 직업을 어느 정도 더 중시하는지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71$ 이었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지금까지 이혼사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부부불화이다(이명신, 김유순, 2005). 이에 4개의 구체적 원인(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학대, 가족 간의 불화)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4개의

문항(예: 나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할 것이다)을 만들어 이혼에 대한 태도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또한, 결혼생활로 인해 직업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지를 연구자가 만든 4문항(예: 나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내가 뜻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이혼할 것이다)으로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유계식과 이재창(1997)의 하위척도로 중요남성의 영향을 측정하는 18문항을 수정하여, 직업의 선택과 관련해서 배우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지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기타, 결혼기대연령, 결혼 후 기대자녀수,

그리고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들도 측정하였다.

결 과

본 절에서는 먼저,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남녀차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관련 변인들과 갖는 상관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외에 측정된 변인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측정변인들에서의 남녀차이

사회적 독립성 및 결혼 관련 변인들에 대한 남녀별 기술통계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좀 더 높아, 남녀 대학생 모

표 1. 사회적 독립가능성 및 결혼 관련 변인들에서 나타난 남녀차이

측정변인	남	여	F 검증(1, 342)
사회적 독립가능성	3.81(.96)	4.16(.90)	11.94***
결혼에 대한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3.59(.98)	4.16(1.05)	26.88***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결혼조건 혼전성관계	4.11(.97)	3.68(1.07)	14.49***
결혼무관 혼전성관계	3.57(1.28)	2.52(1.21)	61.32***
아동양육에 대한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3.35(.95)	3.46(.95)	1.17
가사에 대한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3.53(.83)	3.85(.76)	13.83***
이혼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로 인한 이혼	3.82(.99)	4.50(.86)	46.01***
직업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3.22(1.10)	3.61(1.09)	10.67***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	3.71(.58)	4.01(.06)	22.41***

주. 모든 측정은 6점 Likert형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 $p < .001$

두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와 유사하게, 결혼, 가사, 두 가지 유형의 이혼에 대한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에서도 대학생들은 중간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결혼 관련 변인보다도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강했다. 한편, 아동양육보다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남녀 모두에게 있었지만,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결혼 전 성관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상당히 개방적이었지만, 결혼과 무관한 성관계에서는 여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 측정된 변인들의 경우, 결혼기대연령에서 남학생은 30.03세(SD = 2.54), 여학생은 29.06세(SD = 1.87)로 남학생의 연령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1, 332)} = 15.98, p < .001$. 희망자녀수에서 남학생은 2.29명(SD = 1.46), 여학생은 2.08명(SD = 1.06)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에게 중요한 요인들은 성격, 외모, 직업 혹은 장래성,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종교, 출신지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성격, 직업 혹은 장래성,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외모, 종교, 출신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관련 변인들과 갖는 상관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및 성 관련 변인과 갖는 상관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및 성 관련 변인과 갖는 상관관계

변인	사회적 독립가능성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결혼조건 혼전성관계	결혼무관 혼전성관계
사회적 독립가능성	1.00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남	.64***		
	여	.65***	1.00	
	전체	.66***		
결혼조건 혼전성관계	남	.36***	남 .25**	
	여	.11	여 .15*	1.00
	전체	.18***	전체 .12*	
결혼무관 혼전성관계	남	.32***	남 .23***	남 .68***
	여	.15*	여 .09	여 .76***
	전체	.14*	전체 .03	전체 .73***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 표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에게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독립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보다는 직업을 더 중시했다. 그러나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남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혼전 성관계와 상당히 큰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즉, 독립가능성

이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남학생에게만 해당되었다.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아동양육 및 가사 관련 변인과 갖는 상관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아동양육 및 가사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표 3.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아동양육 및 가사 관련 변인과 갖는 상관관계

변인	사회적 독립가능성	아동양육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가사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사회적 독립가능성	1.00		
아동양육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남	.20*	
	여	.42***	1.00
	전체	.32***	
가사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남	.13	남 .62***
	여	.37***	여 .64***
	전체	.28***	전체 .63***

주. * $p < .05$ *** $p < .001$

표 4.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이혼 및 직업의사결정 변인과 갖는 상관관계

변인	사회적 독립가능성	부부관계로 인한 이혼	직업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
사회적 독립가능성	1.00			
부부관계로 인한 이혼	남	.32***		
	여	.30***	1.00	
	전체	.35***		
직업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남	.14	남 .47***	
	여	.39***	여 .58***	1.00
	전체	.30*	전체 .55***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	남	.07	남 .03	남 .25***
	여	.45***	여 .35***	여 .39***
	전체	.26***	전체 .26***	전체 .35***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결혼 관련 변인들의 사회적 독립가능성에 대한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B	Partial R ²	누적 R ²	F	p
남자대학생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568	.409	.409	107.78	.001
결혼조건 혼전성관계	.160	.044	.453	12.52	.001
여자대학생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462	.418	.418	132.62	.001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	.191	.015	.434	4.87	.05

과 정적 상관이 있어서, 독립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동양육이나 가사에 비해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강했다.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이혼 및 독립적 직업 의사결정과 갖는 상관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두 가지 유형의 이혼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직업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여학생에 한해서 독립가능성은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독립가능성을 준거변인으로 그리고 결혼 관련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남녀 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사회적 독립가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설명력이 큰 변인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대학생에게는 결혼조건 혼전 성관계 변인이, 여자대학생에게는 직업 관련 독립적 의사결정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결혼 관련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알아보았다. 주된 결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성적으로 더 개방적인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들 비해 가사나 양육 등 전통적 결혼과 관련된 특성보다는 직업적 성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여러 변인들 중에서 결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에 한해서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성적 개방성과 큰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동양육, 가사, 이혼 등에 비해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여학생의 경우에 더 강했다. 그리고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부부 간의 갈등이나 결혼과 직업과의 갈등에 따른 이혼을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직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논의하겠다.

직업과 결혼 관련 측면에서 나타난 남녀차이

사회적 독립가능성 그리고 결혼 관련 측면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중간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적으로는 더 보수적이지만,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에 비해 직업을 더 중시하는 진보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먼저, 여성이 사회적 독립가능성 및 결혼 관련 측면보다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의 역할이 경제활동을 통한 가족부양이라는 점에서, 남학생들이 직업을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결혼 대비 직업을 중시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가 가사노동에 비해 사회적 생산 활동과 개인적 욕구의 실현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손승영, 2005; 장혜경, 2004)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높았으며, 결혼이나 가사 등 가족 관련 행위보다는 직업이라는 측면을 더 중요시했다. 일견 남자들이 성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독립이 여성들에게 유리한 정서적인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독립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본 연구가 분명하게 밝혀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후

의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좀 더 정밀하게 정의하고 측정하여 탐구할 필요와 가치가 있어 보인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 관련 대비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매우 자연스런 결과물일 수 있다. 페미니즘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여성들은 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남성들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 상태에 있다(서선희, 1997; Benston, 1973; Mitchell, 1970).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을 해방하는 방법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교육과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며, 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해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노동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남성들 자신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말하자면, 남녀에 따른 역할의 분화 즉, 남성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여성이 가사를 담당하는 역할분화가 현대사회의 가치체계에서 볼 때 남성들에게 득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꽤 당연해 보인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결혼 대비 직업에 대한 상대적 태도에서 진보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성적으로는 더 보수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 한국사회는 유교의

영향 하에서 남성들에게는 허용적이면서도 여성들에게는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성적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김경신, 이선미, 1998). 그러나 서양문화의 유입 및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페미니즘의 운동이 전통적 성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예로, 문인옥, 1997).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성해방이나 여권신장 운동이 주로 교육과 직업이라는 측면, 성과 관련해서는 성적 학대와 성매매에 초점을 두면서, 성적 욕구의 자유로운 분출이나 충족을 더욱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가령 간통죄의 유지나 윤락방지법의 옹호에서 볼 때, 여성들이 성에 대하여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꽤 당연해 보인다.

이 외에도, 대학생들이 보고한 결혼기대연령에 따르면, 남자는 30세, 여자는 29세 정도로 나타나 남녀 간에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연구들과 상통하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기대연령으로 실제 결혼한 연령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이 상당히 늦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취업을 더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학업의 연장 등 더 장기적인 준비가 요구되면서(권태환, 1997), 결혼을 미루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배우자 선택의 경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배우자의 외모를 더 중시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사실과 일치한다(김경신, 이선미, 1998; 서병숙, 정해은,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성격과 함께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

녀 간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 결과(강은숙, 1981; 권오주, 1989; 송재희, 1988), 즉 성격과 함께 여자는 남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나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결과와는 매우 다른 발견이다. 특히, 남자들이 예비배우자의 직업 등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유지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욕구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 관련 태도와의 관계

전반적으로, 사회적 독립가능성은 결혼, 아동양육, 가사, 이혼 대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 및 성적 개방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결혼과 무관하게 경제적, 정서적 등 사회적으로 독립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이나 가정에 비해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성적으로도 더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성에는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높을수록 성적으로도 더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성개방성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와 일맥상통한다(또한, 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말하자면, 여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성적 개방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성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보수적인 판단의 대상이다.

반면에, 남학생의 비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독립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동양육, 가사, 이혼 등을 희생하더라도 직업을 더 중시했다. 이러한 점도 앞서 살펴본 결혼 관련 변인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와 그 맥을 같이 한다(또한,

서선희, 1997; 이주호, 1996; 최강식, 1998; 최경수, 2003; McDonald, 2002).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총칭해서 가사보다는 직업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말하자면, 사회적 독립이 가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독립과 가사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별개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가정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가사에 비해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독립하는데 매우 필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가부장적인 사회체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수적인 가족주의적 관념을 가지면서 경제 및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직업 등 사회적 활동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사회적 독립 가능성, 특히 직업이라는 측면이 결혼이나 가정 관련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성차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근거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을 좀 더 풍부하고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여기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다양한 개념들 특히, 사회적 독립가능성을 좀 더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실제 경험에 근거한 자료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추측이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경험적 사실성에서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여학생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가사보다는 직업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들이나 아이를 둔 직장여성들의 경우, 슈퍼우먼 콤플렉스와 같이 일과 가사노동에서 완벽을 꾀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이나 가정의 의미가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주 (1989).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태환 (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 외,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길임주, 한대동 (2004). 학부제 하의 남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28(4), 233-260.
- 김경신,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학회

- 지, 1(1), 27-43.
- 김대년, 이연숙 (1990). 국내 가사노동 연구의 동향 분석(1).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97-122.
- 김상용 (1996).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한국과 독일에서의 이혼율 증가와 관련해서. 가족법연구, 10, 203-236.
- 김영옥 (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1-15.
- 김영옥 (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1-15.
- 남미애 (2001).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대학교 학생생활연구.
- 문소정 (1994). 가족이데올로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4회 심포지움.
- 문인옥 (1997).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백희영 (2000).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정혜은 (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2, 209-227.
- 서선희 (1997).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토의: 여성학, 가정학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가정학논집, 9, 29-48.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손승희 (2002). 십대의 성의식과 성경험.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pp. 15-48). 서울: 지식마당.
- 송재희 (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유영주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이명신, 김유순 (2005).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여성연구, 69, 35-91.
- 이주호 (1996).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서울: 한국개발원.
- 장혜경 (2004).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제19차 여성정책포럼: 논단, 봄호, 50-54.
- 전북일보 (2006.5.15). 한국여성 경제활동비율 OECD 최하위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학부모·교사의 불건전 정보 대응 실태조사.
- 정현아 (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환 (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은희 (2002). 성매매 세계로의 십대의 유입.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pp. 75-128). 서울: 지식마당.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 최강식 (1998). 노동시장: 지난 1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이원덕 편, 21세기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최경수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서울: 한국개발원.
- 최재석 (1982). 현대가족연구.
- 한국성문화연구소 (1996). 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 보고서: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성문화연구소 (1996). 학교교육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접근 모형 개발.
-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조사연구.
- 홍준숙 (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ston, M. (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 *Monthly Review*, 21, 13-27.
- Buss, D. M. (1985). Human mate selection. *American Scientist*, 73, 47-51.
- Collins, R. (1988).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2nd ed). Chicago: Nelson-Hall Inc.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Goode, W. J. (1982). *The family*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ill.
- Jacobs, H. A. (1996). Gender inequality and higher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53-185.
- Kinsey, A., Pomeroy, W., & Martin, C.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Saunders.
- Landis, J. T., & Landis, M. G. (1968).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derer, W. J., & Jackson, D. D. (1999). The origins of marriage and the family and their disintegration in the modern world. In R. L. DelCampo & D. S. DelCampo (Eds.), *Sources: Notable selections in marriage and the family* (pp. 3-12). CT: Dushkin/McGraw-Hill.
- Mitchell, K. (1970). *Sexual politics*. New York:
- Smith, R. E. (1979). The movement of women into the labor force. In R. E. Smith (Ed.), *The subtle revolution*.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 1 차원고접수 : 2006. 4. 24.
 심사통과접수 : 2006. 6. 4.
 최종원고접수 : 2006. 6. 11.

Relations Between Social Independence and Attitudes Towards Marriage: With Focus on the Importance of Occupation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ocial independence related to economic and sexual aspects may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sex, child birth and housekeeping, divorce and independent decision-making of occup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ose variables mentioned above and an investigation of relations of social independence with other variables. A Data were collected from 334 undergraduates (Men: 158, Women: 186) with survey method. Results indicated that men were more positive to premarital sex and yet women weighted more on occupation than marriage-related activities. Further, only for men, social independ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marital sex, not with other variables and vice versa for wome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ociocultural aspects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Social independence, marriage, sex, child birth, housekeeping, divorce, independent decision-making of occupation and gender differences.*